



◀화순 대곡리 청동기 유물
▶윤두서 유하백마도(윤씨 가보)
▼미륵사지 사리 장엄구
(국립나주박물관 제공)



‘전라도 천년’ 국보·보물 만나세요

국립나주박물관, 선사 유물부터 조선시대 윤두서 자화상 등 100여점 전시... 내년 2월 24일까지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라도 문화 정수를 담은 문화재를 한자리에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남도의 자연과 문화가 빛을 모두 27건의 국보·보물을 감상하는 기회다.

국립나주박물관(관장 은화수)은 내년 2월 24일까지 전라도 천년 및 국립나주박물관 개관 5주년 기념 특별전 ‘풍요로운 땅 전라-천년의 시간을 걷다’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에는 정명 천년을 기념해 선사·고대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분야별 명품 문화재가 집결한다. 불교문화, 유교문화, 예술 분야에 투영된 전라도 역사와 문화를 조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화순 대곡리 청동기 일괄(국보 제143호), 윤두서 자화상(국보 제240호) 등 한 곳에서 보기 어려운 국보 4건, 보물 23건을 포함 100여 건의 문화재가 전시된다.

1부에서는 ‘풍요로운 땅에서 이룬 전라도의 선사·고대문화’를 주제로 지명이 사용되기 이전 영산강 유역의 오랜 역사를 담은 문화재를 소개한다. 청동기시대 유물 가운데 출토지가 유일하게 확인

되는 화순 대곡리 출토 청동기(국보 제143호)와 함께 전(傳) 영암출토 용범(국보 제231호)이 출품돼 영산강 유역의 선사문화를 살필 수 있다. 이어 나주 신촌리 9호분 출토 금동관(국보 제295호) 및 나주 정촌리 고분 출토 금동신발 등을 통해 영산강 유역의 고대문화의 높은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2부의 주제는 ‘미륵산양과 선종이 피어난 전라도의 불교문화’다. 현존하는 깨불 가운데 가장 시기가 이른 것으로 알려진 나주 죽림사 깨불(보물 제1279호)을 비롯해 순천 송광사의 경패(보물 제175호)와 요령(보물 제176호) 그리고 구례 화엄사의 석경(보물 제1040호) 등 전라도의 주요 불교문화재를 소개한다.

수준 높은 고려청자의 신비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고려시대 문화의 정수, 청자’를 주제로 한 3부에서는 강진과 부안에서 제작된 순청자, 상형청자, 삼강청자들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조선 초기 바닷길로 서울에 공급되던 분청사기도 볼 수 있다.

4부에서는 ‘학술과 문예로 꽃 핀 전라도의 유교문화’를 소개한다. 최부, 김인후, 기대승 같은 학자들의 문집과 서간문을 통해 지역 유학자들의 사상과

학문적 성과를 살펴본다. 정철의 가사와 윤선도의 시조 등 국문학사의 주옥 같은 작품도 감상할 수 있다.

5부는 ‘예향 남도의 상징-전통회화의 발전과 계승’이라는 주제로 펼쳐진다. 조선 전기 호남 출신 양반관료들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희경루방회(喜慶樓榜會圖) 등의 계회도(契會圖) 3점을 비롯해 조선시대 초상화의 정점인 공재 윤두서의 자화상(국보 제240호)과 윤두서 집안에서 내려오는 윤씨가보와 가전보회(家傳寶繪) 화첩 2점(보물 제481호) 등이 전시된다. 또한 조선 말기 이 지역에 남종화를 꽃피운 소치 허련의 화화도 출품돼 남도 전통회화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다.

은화수 나주박물관장은 “전라도는 타 지역과는 다른 독특한 문화가 생성돼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명품들이 만들어졌다”며 “한자리에 보기 어려운 전라도의 명품을 감상하며 깊어가는 가을 우리 문화의 정수를 흠뻑 느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문화재는 대여기관의 사정으로 조기 반환 또는 교체될 수도 있다. 문의 061-330-7829.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제 입장 특수한 상황이라 힘들지만 당분간 작품활동에만 매진하겠다”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참가 위해 광주 찾은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

실물과 다른 그림자 증강현실 관심

“제가 처한 입장이 특수한 상황이라 힘든 점도 있지만 한편으론 저를 향한 관심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당분간은 작품에만 신경쓰고 전사가 잘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는 28일 2018미디어아트 페스티벌 개막을 앞두고 참여 작가들의 작품 설치가 한창인 가운데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사진) 씨가 작품 설치를 위해 광주에 왔다.

이번에 ‘확장된 그림자’라는 작품을 출품한 문 작가는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가상현실, 증강 현실을 시적인 감수성으로 풀어낼 예정이다. 아시아 문화전당 창조원에서 만난 문 작가는 환절한 키에 서늘스러운 인상이 눈에 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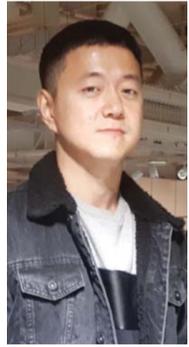
문 작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번 작업에 초점을 뒀다. 하나는 가상현실을 다루는 데 새로운 색도우 렌딩 기법을 적용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게임 엔진을 제작하는 데 유니트 적인 측면에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이어 문 작가는 “그림자라는 왜곡현상 때문에 실제와 다른 게 생길 수 있다”면서 “실물과 다른 그림자 형태를 만드는 데 역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이번 전시될 작품을 완성하는 데 4-5개월이 걸렸다. 혼자서 작업을 하다 보니 개발 기간이 다소 길었다고 한다. “원래부터 그림자를 모티브로 한 증강현실에 관심이 많았다”는 작가는 현실과 가상이 겹쳐지는 부분이 주는 미묘한 효과가 끌었다고 한다.

문 작가는 자신의 영역에서 예술과 기술 두 분야를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분야처럼 미디어아트 또한 점점 확장되고 융합되는 양상과 궤를 같이하기 때문이다.

“저는 새로운 기술을 매개로 새로운 인터랙션을 만드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은 기술 개발, 발명, 엔지니어, 프로그래밍이 모두 결합돼야 가능한 작업이지요. 기술적인 비증이 클 수도 있겠다”



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나 그의 작품에서 배어나오는 것은 시적인 감수성이다. 한편으로는 마술적인 느낌도 없지 않다. 그림자와 실체의 경계선, 그리고 특수 장치에 의해 경계 지점에서 새롭게 확장되는 그림자 효과는 인간의 심리적인 부분을 자극한다. 원래 미디어아트의 기저

에 깔려 있는 사상이 휴머니즘인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문 작가의 작품은 기술과 예술을 매개로 인간주의를 구현한다 할 수 있겠다.

“원래 디자인을 전공했지만 프로그래밍도 배웠다”는 그는 “영상에서 미디어아트를 많이 쓰는데 특수효과나 3D는 모두 연동돼 있다”고 덧붙였다.

문 작가는 지난 2011년 디자인비엔날레 때도 광주에 왔다. 매년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맛집이 많아 어디를 가도 음식이 맛있더라 웃었다.

작품의 자신을 둘러싸고 이런 저런 말이 있는 상황을 의식한 듯 문 작가는 사소한 질문에도 자기검열을 하는 듯 했다. 그럼에도 작품과 관련해서는 시종일관 담담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답을 풀어냈다.

“제가 지금의 미디어 아트 작가로, 디자이너로, 프로그래머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의 영향이 컸습니다. 어린 시절 남들은 잘 안하는 프로그래밍을 접할 수 있도록 해주셨거든요. 또한 부모님은 제가 무슨 일을 하든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하라고 격려를 해주셨어요.”

문 작가는 당분간은 작품활동에만 매진할 계획이다. 신기한 증강현실이 어떻게 현실에서 구현되는지 그 기술적인 느낌을 작품으로 표현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덕령이팀’ 미디어아트 콘텐츠 결과물 공개

29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미디어아트 콘텐츠 결과물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쇼케이스가 열린다.

미디어아트 창의 랩에 참여한 ‘덕령이팀(대표 신도원)’이 ‘덕령이-취화월야’를 29일 오후 6시 홀로극장(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에서 선보인 다.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은 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 광주의 창제작 기반 조성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미디어아트 창의 랩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덕령이팀의 홀로그램 국악관현악극 ‘덕령이-취화월야’는 미디어아티스트 신도원이 시나리오와 총연출, 펑크파마가 무대연출, 임혜선이 영상 작가로 참여했다. 광주의 대표적 의병장 김덕령 장군의 이야기를 소재로 제작됐다. 이경섭(울산시립국악단 지휘자)이 음악감독을 맡고 국 녹음에 30여명의 국악 관현악인이 함께 했다. 또 박무성(광주시립국악단)을 비롯해 전현정, 여자현, 서영주, 조호석, 김주연씨 등 지역 예술가들이 출연했다.

한편 문화예술단체 LapiA의 결과물인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 콘텐츠 ‘Planet Maker’는 최근 미



디어338(빛고을아트스페이스 2층)에서 선보인 바 있다.

문화예술단체 LapiA는 2016년 출범해 김종규(대표·예술경영), 양지은(영상), 박수영(광기술), 전지은(피지컬컴퓨팅) 등이 다양한 장르에 도전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올해 제작한 ‘Planet Maker’는 관람객이 직접 우주 속의 행성을 만들어가는 인터랙티브 콘텐츠다. 문의 062-670-7493.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퇴임 김신영 목포대 교수 헌정연주회 내일 목포대

정년퇴임하는 김신영(사진) 국립목포대학교 음악학과 교수를 위한 헌정연주회가 오는 27일 오후 6시 목포대 창조관 연주홀(도림캠퍼스)에서 열린다.

“김신영과 친구들”이라는 제목으로 1-2부로 나뉜 이번 공연은 김 교수와 그의 제자들이 함께 꾸민다. 1부에서 활발하게 음악활동을 펼치고 있는 15명의 제자들이 ‘쇼팽 프렐류드 작품 28’ 전곡을 연주한다. 공연 2부에서 김 교수는 제자들과 함께 플랑크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을 무대에 올린다.

김 교수는 경희대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뉴욕 컬럼비아대학교에서 피아노교수학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81년부터 목포대 음악학과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는 그는 호남예술제 심사위원과 앙상블 사랑과 나눔 대표, 한국음악학회 부회장, 한국피아노교수

협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했다. 이날 무대에는 정운정·문영미(피아노), 마중수(퍼커션) 등이 함께 한다. 문의 061-450-6050.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선정

IPALG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완벽방수 내구성보강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OO초등학교 맞춤형디자인 시공후

6년무상A/S 정기점검

시공전 시공후

원룸건물 맞춤형디자인 시공후

완벽한방수 난연소재 맞춤형디자인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특허공법·디자인방수·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광주전남 대리점 (062)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061)284-0485
여수 (061)683-0485
순천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